

2023
고2 연매
지학사

고2 언어와 매체 지학사 | 2(2)(1) 단어의 품사와 특성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다 빈출 유형 1

개별 품사의 특성이나 하위 분류에 대해 묻는 유형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9개로 나뉘는 국어의 품사가 다시 어떤 하위 갈래를 갖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준에 따라 한 품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므로, 기준과 그에 따라 대응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9품사 중에서도 ‘동사’, ‘대명사’, ‘조사’, ‘부사’의 하위 갈래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 다음 밑줄 친 부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 사람은 멀리 떠났다.
→ 동사 ‘떠났다’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 ②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다.
→ 대명사 ‘너’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 ③ 과연 내가 찾던 물건이 그곳에 있을까?
→ 문장 전체 ‘내가 찾던 물건이 그곳에 있을까?’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이다.
- ④ 마음이 굵주려 아주 많이 눈물을 흘렸다.
→ 부사 ‘많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이다.
- ⑤ 그러나 그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 앞뒤 문장을 접속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 부사이다.

2. <보기>의 (가), (나)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기>

- (가)는 움직임이 주어에만 관련되는 동사이고, (나)는 움직임이 다른 대상, 즉 목적어에 미치는 동사이다.
- 돼지들이 끽끽대며 먹이가 ㉠실린 수레를 ㉡끈다.
 - 그녀는 신이 나서 ㉢나는 듯이 뛰었다.
 - 결국 시인은 처참하게 ㉣처형되었다.
 - 수사관이 메모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범죄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가)	(나)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

3. 체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명단에는 세 명의 홍길동이 있다.’의 ‘홍길동’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통 명사로 볼 수 있겠군.
- ㄴ. ‘너만큼 사려 깊은 사람도 드물다.’의 ‘만큼’은 반드시 앞말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형식성 의존 명사로 볼 수 있겠군.

ㄷ: '거기 아무도 없어요?'의 '아무'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볼 수 있겠군.

ㄹ: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손녀를 끔찍이 아끼셨어'의 '당신'은 3인칭 재귀칭을 높여 이르는 대명사로 볼 수 있겠군.

ㅁ: '세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의 '세'는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로 볼 수 있겠군.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장에서 주로 주어가 되는 자리에 오며, 때로는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자리에 오는 부류의 단어들을 체언(體言)이라고 한다. 이들은 조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형태의 변화가 없다. 체언에는 명사(名詞), 대명사(代名詞), 수사(數詞)의 세 가지가 있다. 명사는 체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부류로서, 구체적인 대상의 이름이라는 점에서 다른 체언과 구별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이고,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킬 때 쓰이는 체언이다.

명사 중 어떤 속성을 지닌 대상에 두루 쓰이는 이름을 보통 명사라고 하고, 특정한 하나의 개체를 다른 개체와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을 ㉠고유 명사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인명, 지역명, 상호 등이 고유 명사에 속한다.

또한 혼자서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자립 명사라고 하고 반드시 그 앞에 꾸미는 말, 즉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 명사라고 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체언이다. 대명사에는 지시 대명사와 인칭 대명사가 있다. 지시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 등과 같이 사물을 가리키는 것과 '여기, 거기, 저기' 등과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있으며, 인칭 대명

사는 1인칭, 2인칭, 3인칭으로 나뉜다.

대명사에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미지칭(未知稱),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不定稱),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再歸稱) 등이 있다.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수사라고 한다. 수사에는 수량을 나타내는 양수사(量數詞)와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序數詞)가 있다.

4.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순이야. 방에 들어가서 오빠 좀 깨워라.
 ② ㉡: 그의 마음은 가벼운 구름과 같을 따름이었다.
 ③ ㉢: 너무 배가 고파서 무엇이든 먹어야겠다.
 ④ ㉣: 영희는 항상 자기 생각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⑤ ㉤: 식권은 한 사람당 하나만 나누어 주십시오.

5.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물이 0°C에서 얼음이 된다.
 ○○고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ㄴ. 나는 굴과 딸기를 먹었다.
 남자는 구두랑 가방을 샀다.
 ㄷ. 시작부터 끝까지 재밌었다.
 그는 하루 종일 만두만 먹었다.
 ㄹ. 나에게도 너만 있으면 된다.
 코스모스가 예쁘게도 피어있다.
 ㅁ. 굴은 열매이고, 당근은 뿌리이다.
 좋은 생각이면 그대로 실천한다.

- ① ㄱ: 형태가 같으면 문장에서의 역할도 같다.
 ② ㄴ: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
 ③ ㄷ: 앞의 체언과 결합하여 특수한 뜻을 더해준다.
 ④ ㄹ: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다른 조사 뒤에 붙여

쓰기도 한다.

- ⑤ ㄹ: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지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도 있다.

- ④ ㉠은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2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⑤ ㉡은 1인칭 대명사를 ㉠은 2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지만,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다.

6. <보기>를 통해, 담화 속의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7.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조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 보 기 >

선생님: 자, 집중하세요. 수행 과제에 대해 안내합니다. 다음 수행 과제는 ㉠여러분이 배운 현대시 작품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골라보세요.

학생1: 비평문 쓸 작품 정했어? ㉢누구 작품으로 쓸 거야?

학생2: 김소월 시인의 작품으로 하려고 해. 너는?

학생1: ㉣누구 작품이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학생2: 에이 왜 그래…….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학생1: 사실은 ㉤우리 엄마가 좀 편찮으셔. 요즘 ㉥당신 손으로 아침 식사를 못 챙겨주신다고 가족들한테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학생2: 그렇구나 ㉧너 많이 속상하겠다. 근데, 그럴수록 네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학교생활을 잘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시험 공부도 수행과제도 열심히 준비하자.

학생1: 그래, 내 동생도 예전보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

< 보 기 >

ㄱ. 동생도 사과 좀 깎아 줘.
 ㄴ. 그 친구는 외국어마져 잘한다.
 ㄷ. 오늘은 학교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ㄹ. 방학이 되면 철수와 영희가 돌아온다.
 ㄹ. 외모는 예쁜데, 마음씨는 그렇지 않다.

- ① ㉠은 2인칭 복수 대명사로 청자를 의미하고, ㉡은 1인칭 대명사로 화자를 의미한다.
 ② ㉢은 정해지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고, ㉣은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③ ㉤과 ㉦은 청자를 제외한 1인칭을 뜻하는 대명사이다.

- ① 가해: ㄱ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야.
 ② 나순: ㄴ의 '마져'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하나 남은 마지막'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지.
 ③ 다명: ㄷ의 '요'는 '청자를 높이기 위한'의 뜻으로 쓰는 보조사라고 할 수 있어.
 ④ 라희: ㄹ의 '와'는 '철수와 영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야.
 ⑤ 바선: ㄹ의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보면 돼.

8. 아래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 보 기 >

부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뉜다. 어느 한 성분만을 수식하는 것은 ㉠성분 부사, 말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거나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것을 문장 부사라고 한다.

- ① 모쪼록 밤에는 늘 몸조심하여라.
- ② 바로 앉아서 국어 수업에 임해라.
- ③ 그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④ 다행히 우리는 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 ⑤ 이런 음식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9. <보기>의 예문을 참조해 서술격 조사와 다른 격 조사와 차이점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보 기>

- ○○고는 최고의 시설이다.(/이니/이고/이네)
- 은주는 고등학생이다. (/이었다).
- 독서는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다. (/이지/이군)
- 친구에게(*가/*야/*을) 빵을(*이/*에게) 주었다.

*표시는 비문법적인 문장

- ① 품사를 '형태'로 구분할 때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 다른 격 조사는 '불변어'에 속해.
- ② 품사를 '기능'으로 구별할 때 서술격 조사는 '용언', 다른 격 조사는 '관계언'에 속해
- ③ 품사를 '의미'로 구별할 때 서술격 조사와 다른 격 조사는 품사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
- ④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다른 격 조사와 달리 단어에 포함되지 않아.
- ⑤ 서술격 조사는 앞 단어에 붙여 쓰는 반면, 다른 격 조사는 앞 단어와 반드시 띄어 써야 해.

10. <보기>를 읽고, 대명사를 바르게 나눈 것을 고르면?

<보 기>

대명사에는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는 '미지칭',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키는 '부정칭'.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내는 '재귀칭' 등이 있다.

- ㄱ.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합니까?
- ㄴ. 이 물건은 무엇에 쓰는 것인가요?
- ㄷ. 창밖으로 보이는 저기가 어디입니까?
- ㄹ. 시험을 칠 때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 ㅁ. 너는 누구길래 나한테 자꾸 아는 척하니?
- ㅂ. 원빈은 자기 얼굴이 제일 잘났다고 우긴다.
- ㅅ.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 들어온 사람 없나요?

	미지칭	부정칭	재귀칭
①	ㄱ, ㄹ	ㄴ, ㄷ, ㅁ	ㅂ, ㅅ
②	ㄴ, ㅂ	ㄱ, ㄹ, ㅁ	ㄷ, ㅅ
③	ㄱ, ㄴ, ㄹ	ㄷ, ㅂ, ㅅ	ㅁ
④	ㄴ, ㄷ, ㅁ	ㄱ, ㄹ, ㅅ	ㅂ
⑤	ㄷ, ㄹ, ㅅ	ㄱ, ㅁ, ㅂ	ㄴ

11. <보기>를 바탕으로 동사의 특성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ㄱ. 앉다: 철수가 자리에 앉았다.
- ㄴ. 앉히다: 선생님이 철수를 자리에 앉혔다.
- ㄷ. 잡다: 철수가 개구리를 잡았다.
- ㄹ. 잡히다: 개구리가 철수에게 잡혔다.

- ① ㄱ: '앉다'는 움직임이 '철수'에만 관련되는 자동사이군.
- ② ㄴ: '앉히다'는 움직임이 '철수'에 미치는 타동사이군.

- ③ ㄴ: '앉히다'는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사동사이군.
- ④ ㄷ: '잡다'는 움직임이 주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사이군.
- ⑤ ㄹ: '잡히다'는 움직임이 남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피동사이자 타동사이군.

12. <보기>의 밑줄 친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제가 먼저 책을 읽겠습니다.
 ㄴ. 그것은 종이가 아니다.
 ㄷ. 나의 연필은 어디에 있을까?
 ㄹ. 철수와 영희는 성실한 학생이다.

- ① ㄱ의 '가'는 앞말이 주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② ㄴ의 '가'는 앞말이 보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③ ㄷ의 '의'는 앞말을 부사어로, '에'는 앞말을 관형어로 만드는 기능을 한다.
- ④ ㄹ의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 ⑤ ㄹ의 '이다'는 여러 형태로 활용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13. <보기 1>의 설명을 참고하여 <보기 2>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1>

국어의 의문문은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의문사를 동반하며 관련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으로 나뉜다. 이러한 의문문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담화 맥락에 의존하지만, 문장에 어떤 대명사가 활용되느냐

에 따라서도 의문문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의문사로도 불리는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미지칭 대명사로서 모르는 대상을 알기 위해 설명 의문문에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가 판정 의문문에 쓰이기도 하는데, 판정 의문문이나 평서문. 명령문 등에 쓰이는 '언제, 누구, 무엇, 어디'는 미지칭 대명사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특정적으로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부정칭의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것을 의미한다. 재윤이가 바쁘게 걸어가던 정아에게 '어디가?'라고 물어보고, 정아가 '응.'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이때 재윤이는 '어디가?'를 설명 의문문이 아니라 판정 의문문으로 사용한 것이 된다.

<보 기 2>

㉠ 누가* 왔었어?
 ㉡ 어제 저녁에 철수랑 뭐 먹었어?
 ㉢ 너 요즘 누구 좋아하니?
 * '누가'는 '누구가'의 준말이다.

- ① ㉠에 대해 '응. 아까 왔다 갔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 ② ㉠에 대해 '응. 아까 왔다 갔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은 판정 의문문이다.
- ③ ㉡에 대해 '응. 먹었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④ ㉢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은 설명 의문문이다.
- ⑤ ㉢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구'는 미지칭 대명사이다.

최다 빈출 유형 2

제시된 단어의 품사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품사를 묻기보다는, 동일한 형태이지만 다른 품사로 분류하는 품사 통용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 '동사와 형용사', '조사와 의존 명사', '수사와 수 관형사' 등의 구분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4. 다음은 '품사 통용'을 탐구하기 위한 사례이다. 각 사례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례	탐구 내용
①	ㄱ. 셋에 <u>여섯</u> 을 더하면 아홉이다. ㄴ. 여기에 둔 탄산수 <u>여섯</u> 병이 어디 갔지?	ㄱ의 '여섯'은 수사이고, ㄴ의 '여섯'은 수 관형사이다.
②	ㄱ. <u>여기</u> 에 너의 소중한 물건을 놓아라. ㄴ. 학교에서 가져온 물건을 <u>여기</u> 놓아라.	ㄱ의 '여기'는 지시대명사이고, ㄴ의 '여기'는 지시 부사이다.
③	ㄱ. 너처럼 <u>지적</u> 인 아이는 처음이야. ㄴ. <u>지적</u> 수준이 높아서 이 단계는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	ㄱ의 '지적'은 형용사이고, ㄴ의 '지적'은 성상 관형사이다.
④	ㄱ. 그 사건을 <u>법대로</u> 공정하게 처리하자. ㄴ. 내가 처리하는 <u>대로</u> 내버려 둬.	ㄱ의 '대로'는 보조사이고, ㄴ의 '대로'는 의존 명사이다.
⑤	ㄱ. 나를 생각하는 <u>그</u> 마음이 고맙다. ㄴ. <u>그</u> 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다.	ㄱ의 '그'는 지시 관형사이고, ㄴ의 '그'는 3인칭 대명사이다.

15. (가) 글과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한 것은?

<보기>

(가)

우리말에는 형태는 같지만 기능이 달라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특히, 의존명사는 조사, 어미의 일부 등과 같아 띄어쓰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때 이들의 문법적 특성을 이해하면 띄어쓰기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의존 명사는 의미상 그 앞에 수식하는 말, 즉 관형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존적인 말이지만 자립 명사와 같은 명사 기능을 하므로 단어로 취급하여 앞말과 띄어 쓴다. 그러나 조사는 결합한 앞말과 분리해도 앞말이 자립성을 유지하므로 단어로 보지만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 그리고 어미는 용언의 어간과 분리하면 어간과 어미가 모두 자립성을 잃기 때문에 단어로 보지 않으며 앞말에 붙여 쓴다.

사전은 문법적 특징과 의미 등의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띄어쓰기 여부를 확인할 때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

만큼 [I] 「의존 명사」

「1」 앞의 내용에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말.

「2」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말.

[II] 「조사」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데 「의존 명사」

「1」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말.

「2」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

-는데 「어미」

「1」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

- ① 명주는 무명 만큼 질기지 못하다.
- ② 소리가 나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 ③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나 걸렸다.
- ④ 학교에 가는 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⑤ 방 안은 숨소리가 들릴만큼 조용했다.

16. 다음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하나의 단어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품사 부류에 소속된다. 그런데 단어 가운데는 둘 이상의 품사 부류에 소속되는 것이 있는데, 이를 품사의 통용이라 한다. 가령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다’의 ‘만큼’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지만,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짓다’의 ‘만큼’은 앞말과 비슷한 정도나 한도임을 나타내는 조사이다. ‘만큼’이 명사와 조사로 쓰인 것이다. 이 밖에도 국어에는 ㉠명사와 부사로 쓰이는 경우, 수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와 같이 두 개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①	- <u>오늘</u> 의 날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그가 <u>오늘</u> 온다고 했다.
②	- 모두 <u>같이</u> 학교에 갑시다. - 방바닥이 <u>얼음장같이</u> 차갑구나.
③	- 식구 <u>모두</u> 가 여행을 떠났다. -그릇에 담긴 소금을 <u>모두</u> 쏟았다.
④	- 그는 모든 원인을 자기의 <u>잘못</u> 으로 돌렸다. - 그는 길을 <u>잘못</u> 들어서 한참 헤맸다.

⑤	- 시민들에게는 <u>절대</u>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이 말은 남에게 <u>절대</u>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

17. <보기>의 밑줄 친 단어의 품사로 적절한 것은?

<보기>

- ㄱ. 벌써 새벽이 밝아 온다.
- ㄴ. 실내가 매우 밝아서 좋다.
- ㄷ. 키보다 생각이 큰 사람이 되자.
- ㄹ. 아이들은 칭찬 한 마디에 큰다.
- ㅁ. 그는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다.
- ㅂ.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서류 작성이 늦는다.

	동사	형용사
①	ㄱ, ㄷ, ㅁ	ㄴ, ㄹ, ㅂ
②	ㄱ, ㄹ, ㅁ	ㄴ, ㄷ, ㅂ
③	ㄱ, ㄷ, ㅁ	ㄴ, ㄹ, ㅂ
④	ㄴ, ㄷ, ㅂ	ㄱ, ㄹ, ㅁ
⑤	ㄴ, ㄹ, ㅂ	ㄱ, ㄷ, ㅁ

18.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서로 같은 것은?

- ① 야! 오늘 정말 멋지다.
친구야! 네가 있어 행복해.
- ② 우리 같이 바다에 가자.
엄마 품같이 따듯함을 느낀다.
- ③ 이번에 더 열심히 달리기로 하자.
목표는 최선을 다해 달리기로이다.
- ④ 우리 모두에게는 인권이 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좋은 세상을 만들자.
- ⑤ 오늘 나는 매우 지적으로 보인다.
○○고 학생들의 지적 수준은 매우 높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⑤

‘그러나’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을 접속하는 역할을 하므로 접속 부사이다.

① ‘멀리’는 이어지는 동사 ‘떠났다’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다.

② ‘바로’는 이어지는 대명사 ‘너’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다.

③ ‘과연’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④ ‘아주’는 이어지는 부사 ‘많이’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다.

2. 정답 ⑤

(가)는 자동사, (나)는 타동사에 대한 설명이다. 제시된 예시를 살펴보면 ㉠, ㉡, ㉢, ㉣은 주어만을 필요로 하므로 자동사이고, ㉤, ㉥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므로 타동사임을 알 수 있다.

3. 정답 ③

ㄱ. ‘명단에는 세 명의 홍길동이 있다.’의 ‘홍길동’은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보통 명사이다.

ㄴ: ‘거기 아무도 없어요?’의 ‘아무’는 정해지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부정칭 대명사이다.

ㄷ: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손녀를 끔찍이 아끼셨어’의 ‘당신’은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자기’ 대신 사용되었으므로 3인칭 재귀칭을 높여 이르는 대명사이다.

ㄹ. ‘너만큼 사려 깊은 사람도 드물다.’의 ‘만큼’은 체언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조사이다.

ㅁ: ‘세 친구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의 ‘세’는 이어지는 ‘친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이다.

4. 정답 ⑤

‘한’은 이어지는 체언인 ‘사람’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수 관형사에 해당한다.

① ‘순이’는 인명이므로, 고유 명사에 해당한다.

② ‘따름’은 관형어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으므로, 의존 명사에 해당한다.

③ ‘무엇이든’은 정해지지 않은 물건을 의미하므로, 부정칭에 해당한다.

④ ‘자기’는 문장의 주어인 ‘영희’를 다시 나타내고 있으므로, 재귀칭에 해당한다.

5. 정답 ①

ㄱ의 ‘에서’는 형태가 같지만 문장에서 각각 부사격 조사와 주격 조사로 쓰였으므로 다른 역할을 지니고 있다.

ㄴ의 ‘과’와 ‘랑’은 형태가 다르지만,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 조사이다.

ㄷ의 ‘까지’와 ‘만’은 앞의 체언과 결합하여 특수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이다.

ㄹ의 ‘도’를 통해 알 수 있듯 보조사는 ‘나에게도’처럼 다른 조사나 ‘예쁘게도’처럼 용언의 활용형 뒤에 쓰이기도 한다.

ㅁ의 ‘이고’, ‘이면’은 서술격 조사 ‘이다’의 활용형으로,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지만, 서술격 조사는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6. 정답 ⑤

㉠은 1인칭 대명사, ㉡은 2인칭 대명사이지만 모두 학생 1을 가리키고 있다.

① ㉢의 ‘여러분’은 2인칭 복수 대명사로 화자를 제외한 청자를 의미하고, ㉣은 재귀 대명사로 청자를 의미한다.

② ㉤은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이며, ㉥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을 가리키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③ ㉦의 ‘우리’는 청자를 제외한 1인칭을 뜻하는 대명사이며, ㉧은 ‘동생’을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④ ㉨은 앞에 나온 체언인 ‘우리 엄마’를 다시 나타내며 높이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7. 정답 ⑤

ㄱ의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보조사이다.

- ① ㄱ의 '도'는 보조사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 ② ㄴ의 '마저'는 보조사로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 하나 남은 마지막'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 ③ ㄷ의 '요'는 보조사로 '칭자를 높이기 위한'의 뜻으로 쓰였다.
- ④ ㄹ의 '와'는 접속 조사로 '철수와 영희'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기 위해 쓰였다.

8. [정답] ②

'앉아서'라는 서술어를 꾸미고 있으므로 성분 부사이다.

- ① '밤에는 늘 몸조심하여라.'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 ③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 ④ '우리는 그의 집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 ⑤ '안 먹는 게 낫다.'라는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으므로 문장 부사이다.

9. [정답] ①

품사를 '형태'로 구분할 때 서술격 조사는 문장 내에서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가변어', 다른 격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변어'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품사를 '기능'으로 구별할 때 서술격 조사와 다른 격 조사는 모두 문장 성분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관계언'에 속한다.
- ③ 품사를 '의미'로 구별할 때 서술격 조사와 다른 격 조사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격 조사'에 속한다.
- ④ 서술격 조사는 다른 조사로 교체할 수 없으며, 다른 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단어에 포함된다.
- ⑤ 서술격 조사를 포함한 모든 격 조사는 앞 단어와 반드시 붙여 써야 한다.

10. [정답] ④

ㄴ, ㄷ, ㄹ은 모르는 사물이나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미지칭'이며, ㄱ, ㄹ, ㅅ은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 물건, 방향, 장소 따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부정칭'이며, ㅂ은 앞에 한 번 나온 체언을 다시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귀칭'이다.

11. [정답] ⑤

'잡히다'는 주어인 '개구리'의 움직임이 '철수'의 동작이나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피동사이지만, 그 범위가 주어에만 관련되며 목적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동사이다.

- ① '앉다'는 움직임이 '철수'에만 관련되며, 목적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동사이다.
- ② '앉히다'는 선생님의 움직임이 '철수'라는 목적어에 미치므로 타동사이다.
- ③ '앉히다'는 주어인 선생님이 '철수'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므로 사동사이다.
- ④ '잡다'는 움직임이 주어인 '철수'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므로 능동사이다.

12. [정답] ③

ㄷ의 '의'는 말을 관형어로 만드는 관형격 조사이며, '에'는 앞말을 부사어로 만드는 기능을 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① ㄱ의 '가'는 앞말이 주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주격 조사이다.
- ② ㄴ의 '가'는 '아니다' 앞에 쓰여, 앞말이 보어가 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보격 조사이다.
- ④ ㄹ의 주로 문어체에 쓰여 '와'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기능을 하는 접속 조사이다.
- ⑤ ㅁ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문장에서 용언처럼 여러 형태로 활용하는 가변어에 속한다.

13. [정답] ⑤

㉞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 의문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설명 의문문에 쓰인 '누구'는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미지칭 대명사이다.

- ① ㉟에 대해 '응. 아까 왔다 갔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누구'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부정칭 대명사이다.
- ② ㉟에 대해 '응. 아까 왔다 갔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㉟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 ③ ㉡에 대해 '응. 먹었어.'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

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뭐'는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쓰인 미지칭 대명사이다.

④ ㉠에 대해 '아니'라는 대답으로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면 ㉠은 구체적인 설명이 아닌 '예/아니오'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다.

14. **정답** ③

ㄱ의 '지적'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였으므로 명사이며, ㄴ의 '지적'은 체언 '수준'을 꾸미는 성상 관형사이다.

① ㄱ의 '여섯'은 조사 '을'과 결합하여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 수사이고, ㄴ의 '여섯'은 '병'이라는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수 관형사이다.

② ㄱ의 '여기'는 부사격 조사 '에'와 결합하여 장소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지시 대명사이고, ㄴ의 '여기'는 조사와의 결합 없이 '놓다'라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쓰였으므로 지시 부사이다.

④ ㄱ의 '대로'는 체언 '법'에 결합하여 앞에 오는 말에 근거하거나 달라짐이 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고, ㄴ의 '대로'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이다.

⑤ ㄱ의 '그'는 '마음'을 수식하는 지시 관형사이고, ㄴ의 '그'는 격 조사 '를'과 결합하며 문장의 목적어로 쓰인 3인칭 대명사이다.

15. **정답** ②

관형사의 꾸밈을 받으며, 격 조사 '가'가 결합하여 쓰이므로 '데'는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나는 데'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은 적절하다.

① 체언 뒤에 결합한 조사로 '무명만큼'과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③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로 '읽는 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한다.

④ 앞뒤 용언을 연결하는 연결 어미로 '가는데'와 같이 붙여 써야 한다.

⑤ 관형사의 꾸밈을 받는 의존 명사로 '들릴 만큼'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6. **정답** ②

첫 번째 '같이'는 부사이며, 두 번째 '같이'는 '얼음장'과 결합하였으므로 조사이다.

① 첫 번째 '오늘'은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한 명사이며, 두 번째 '오늘'은 '온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③ 첫 번째 '모두'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한 명사이며, 두 번째 '모두'는 '쏟았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④ 첫 번째 '잘못'은 부사격 조사 '으로'와 결합한 명사이며, 두 번째 '잘못'은 '들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⑤ 첫 번째 '절대'는 체언 '자유'를 수식하는 명사이며, 두 번째 '절대'는 '하지 말다'라는 서술어를 수식하므로 부사이다.

17. **정답** ②

ㄱ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동사, ㄴ은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ㄷ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하였으므로 형용사, ㄹ은 현재 시제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ㅁ은 현재 시제 종결 어미 '-는다'가 결합하였으므로 동사이다. ㅂ은 현재 시제 종결 어미 '-다'가 결합하였으므로 형용사이다.

18. **정답** ④

첫 번째 '모두'와 두 번째 '모두'는 '일정한 수효나 양을 기준으로 하여 빠짐이나 넘침이 없는 전체'를 의미하는 명사로 각각 문장에서 부사어와 주어로 쓰였다.

① 첫 번째 '야'는 감탄사, 두 번째 '야'는 호격 조사이다.

② 첫 번째 '같이'는 부사, 두 번째 '같이'는 부사격 조사이다.

③ 첫 번째 '달리기'는 동사, 두 번째 '달리기'는 명사이다.

⑤ 첫 번째 '지적'은 명사, 두 번째 '지적'은 관형사이다.

19. **정답** ④

'다술아!'는 인명인 '다술'이 '아'라는 호격 조사와 결합한 것으로, 감탄사는 사용되지 않았다.

① '네'가 대답을 위해 사용된 감탄사이다.

② '우와'가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감탄사이다.

③ '에구머니나!'가 느낌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감탄